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을 넘어서: 경험적 자세의 철학사적 의의

Beyond the Opposition of Empiricism and Rationalism: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mpirical Stance

우인진 (Injin Woo)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게재본 서지사항

우인진,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을 넘어서: 경험적 자세의 철학사적 의의」,
『근대철학』 제25집 (서양근대철학회, 2025), pp. 113-143.

DOI: 10.52677/mph.2025.04.25.4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을 넘어서: 경험적 자세의 철학사적 의의

초록

근대 철학사를 서술할 때, 철학자들을 경험론자와 합리론자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구분은 19세기의 철학사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은 경험론-합리론 이분법 형성의 역사와 그 한계를 검토한 뒤에, 반 프라센의 “경험적 자세” 개념을 경험론 역사의 이해의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경험론은 고정된 교의가 아니라 철학적 자세로 간주되어야 한다. 새롭게 해석된 경험론을 통해 근대 철학사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경험론-합리론 이분법 구도의 역사적 형성과 이분법에 대한 비판, 2) 경험적 자세 개념과 이 개념의 철학사 서술에서의 함의, 3) 철학사에 자세 개념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 문제들, 4) 전통적 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철학사 서술 방향에 관한 제안.

■ 주제어 : 경험론, 관념론, 경험적 자세, 반 프라센, 구성적 경험론

Abstract

In the historical narrative of modern philosophy, a prevalent classification categorizes philosophers as empiricists and rationalists. This categorization emerged from 19th-century interpretations of philosophical history. This paper delves in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mpiricism-rationalism dichotomy, examining its limitations and proposing Bas van Fraassen's concept of the “empirical stance” as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comprehending the history of empiricism. Empiricism should not be perceived as an unchanging doctrine but rather as a philosophical stance. Through this reinterpretation, novel insights into the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can be gained. The discussion is structured as follows: (1)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empiricism-rationalism dichotomy and critiques of this framework, (2) The concept of the empirical st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historiography, (3) Potential challenges in applying the stance concept to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4) Proposals for alternative approaches to historiography that transcend the traditional dichotomy.

■ Keyword: Empiricism, Idealism, Empirical stance, B. van Fraassen, Constitutive Empiricism

서론

근대 초기 철학사를 서술할 때 흔히 사용되는 '경험론 대 합리론' 구도(표준 내러티브)는 19세기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널리 통용되는 이분법적 분류이다. 표준 내러티브는 로크-버클리-흄(LBH)으로 대표되는 경험론 전통과 데카르트-스피노자-라이프니츠(DSL)로 이어지는 합리론 전통이라는 선형적인 두 흐름과 이를 종합한 칸트라는 구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도는 실제 철학사에서 발견되는 사상적 다원성과 다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비판은 이 내러티브 자체가 19세기 칸트주의 역사학자들에게서 비롯한 근대 말의 구성물이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갈등 구조가 교과서상에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표준 내러티브의 내용과 그 형성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이 접근법의 문제를 확인한다. 그 후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철학사 연구에 대한 분석철학 내부의 새로운 제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표준 내러티브의 형성 과정을 살핀다. 특히 영국 철학자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후 2장에서는 영국 경험론을 중심으로 표준 내러티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LBH를 단일한 계보로 엮을 때의 문제, 영국과 대륙의 사상적 교류 문제, 칸트의 위상에 관한 문제, 소수자 철학자의 문제 등을 다룬다. 3장에서는 반 프라센의 경험적 자세(empirical stance), 또는 자세 경험론(stance empiricism) 개념을 소개하고, 경험론을 자세로 해석할 때 얻는 이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자세 경험론이 철학사에 적용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비판과 잠재적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철학사 해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한다.

I. 경험론-합리론 이분법의 기원

이 장에서는 먼저 근대 초기 철학사 논의에서 경험론 대 합리론이라는 이분법, 이른바 표준 내러티브(standard narrative)의 기원에 대해 분석한다. 많은 철학사 교과서에서 근대 초기 유럽의 철학 접근 방식은 지식의 근원에 대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서술한다. 표준 내러티브에 따르면 로크-버클리-흄

(John Locke - George Berkeley - David Hume, 이하 LBH)으로 이어지는 영국 경험론 전통에서는 지식의 기초로서 경험과 관찰을 강조하며 본유관념을 거부한다. 반면 데카르트-스피노자-라이프니츠(René Descartes - Baruch (de) Spinoza - Gottfried Wilhelm Leibniz, 이하 DSL)로 이어지는 합리론 전통에서는 순수 이성과 본유 관념이 지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뚜렷한 갈등 속에서 칸트는 두 전통을 성공적으로 종합했다.

표준 내러티브에 따르면 경험론자들은 지식은 경험으로부터만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로크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 빈 서판(tabula rasa) 상태이며, “우리의 모든 관념은 경험에서 온다”고 주장했다.²⁾ 반면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정신이 감각적 입력과 무관하게 중요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들은 본유 관념 또는 지적 직관(intellectual intuition)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감각 경험에서 도출되지 않는 아 프리오리한(a priori) 지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경험만으로는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수학적 진리나 형이상학적 진리 등은 감각 경험에서 온전히 도출되지 않으며, 실체, 무한, 신 등은 경험만으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의 신 이성론(Nouveaux essais sur l'entendement humain)은 로크의 인간 지성론(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 대한 장 별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준 내러티브에 상정된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³⁾

이 대립의 정식화에는 칸트(Immanuel Kant)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볼프(Christian Wolff) 등의 합리론자들이 이성을 형이상학의 독단적 체계로 확대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경험론자(LBH, 특히 흄)는 지식을 경험에 한정함으로써 회의론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칸트는 흄의 경험론이 자신을 “잠에서 깨웠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립을 극복하는 중도를 찾고자 했다.⁴⁾

위에 기술된 “영국 경험론 대 대륙 합리론”의 내러티브는 주로 19세기에 형성된 역사적 구성물이다.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역사가자들은 칸트의 업적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대립하는 두 전통과, 이를 종합하는 칸

2) Locke, John (1959),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vol. 1, ed. Alexander Campbell Fraser, New York: Dover, 121-22.

3) Leibniz, G. W. (1981),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anslated and edited by Peter Remnant and Jonathan Benn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Kant, Immanuel. (2004). *Immanuel Kant: Prolegomena to Any Future Metaphysics: That Will Be Able to Come Forward as Science: With Selections From the Critique of Pure Rea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60.

트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했다. 대표적으로 라인홀트(Karl Leonhard Reinhold), 테네만(Wilhelm Gottlieb Tennemann), 피셔(Kuno Fischer)와 부흘레(John Gottlieb Buhle) 등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⁵⁾ 먼저 칸트의 제자였던 라인홀트가 인간 표상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 시도(Versuch einer neuen Theorie des menschlichen Vorstellungsvermögens, 1789)에서 이러한 해석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해석에 영향을 받은 테네만의 다권본 철학사(Geschichte der Philosophie, 1798-1819)와 부흘레의 근대 철학사(Geschichte der neuen Philosophie, 1796-1804)는 근대 철학의 표준 내러티브 구분을 명확히 한 최초의 체계적인 역사서였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피셔의 근대 철학사 (Geschichte der neueren Philosophie, 1854-1877)가 널리 퍼지며 이러한 구분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기여했다.⁶⁾

한편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의 관념론자들이 경험론-합리론 구도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했다. 그린(T.H. Green)은 1874년 흄의 저작의 판본에 서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서 흄이 경험 철학(empirical philosophy)의 필연적이고 부정적인 귀결이라고 주장했다.⁷⁾ 그는 LBH의 선형적 과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철학(즉, 영국식의 관념론)의 필요성을 정당화 했다. 또한 이런 서술 방식은 영국 경험론에 미친 대륙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경험론이 마치 영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쟁적이었다.

짧게 살펴보았듯 표준 내러티브는 독일의 철학사가들에 의해 공고화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사상가들에게도 수용되었다. 이런 관점은 20세기에든 계속해서 철학사 서술을 지배했다. 예컨대 러셀(Bertrand Russell)의 서양 철학사(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1945)와 코플스톤의 다권본 철학사(History of Philosophy, 1946-1975)에도 드러나고 있으며, 전문적인 철학사 서술 외에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및 다양한 교과서에도 DSL 대 LBH의 구도는 근대 철학의 핵심으로 묘사되었다.⁸⁾ 요컨대, 20세기 중반까지 LBH의 경험론과 DSL의 합리론

5) Vanzo, Alberto(2016), "Empiricism and Rationalism in Nineteenth-Century Histories of Philosoph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7 (2), pp. 264-268; Anstey, Peter R. & Vanzo, Alberto(2023), *Experimental philosophy and the origins of empiricism. Edited by Alberto Vanz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2-282.

6) Vanzo, Alberto ,Ibid. pp. 259-261

7) 그린과 리드(Thomas Reid)의 영국 경험론 비판에 관해서는 Vanzo, Alberto, Ibid. 269-272; Donald Garrett(2004), "Philosophy and History in the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in *The Future for Philosophy*, ed. Brian Lei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49.

8) Russell, Bertrand(2020), 『러셀 서양철학사』, 서상복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pp. 879-1111;

사이의 대결이 철학사에서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구분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철학사 기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명확해 보이는 내러티브는 후대의 구성물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편리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에 대한 여러 비판을 확인한다.

II. 표준 내러티브에 대한 비판

합리론 전통의 일관성 문제도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경험론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이 장에서는 1장에서 살펴본 표준 내러티브가 경험론을 왜곡하는 방식에 집중한다. 표준 내러티브는 첫째, LBH 전통으로 대표되는 단일한 선형적인 영국 경험론 전통 가정의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표준 내러티브에서 간과된 영국 경험론에 대한 대륙 철학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셋째, 칸트 철학이 근대 철학을 완성했다는 서술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넷째, 주변적인 철학자들, 예컨대 흑인 철학자 아모(Anton Wilhelm Amo)와 여성 철학자들, 그리고 덜 알려진 철학자들이 배제되는 문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경험론에 관한 새로운 해석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 LBH 전통이라는 상정의 문제

LBH로 이어지는 영국 경험론의 단일한 선형적인 계보는 후대에 형성된 철학사적 구성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고전적인 비판으로는 노턴(David Fate Norton)을 들 수 있다.⁹⁾ 노턴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LBH의 철학적 견해는 한 덩어리로 묶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분절되어 있다. 2) 근대 경험론의 기원은 로크가 아닌 가상디(Pierre Gassendi)에게서 찾아야 한다.

Copleston, F(1991). 『영국 경험론』, 이재영 옮김, 서울, 서광사; Copleston, F(1996), 김성호 옮김, 『합리론』, 서울, 서광사, 이 외에도 김효명 역시 영국 경험론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표준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김효명(2002), 『영국 경험론』, 서울, 아카넷, p.12.

9) Norton, David Fate (1981). “The myth of ‘British empiricism’”, *History of European Ideas* 1 (4), 331-344.

첫 번째 비판을 자세히 살펴보자. 표준 내러티브는 LBH로 이어지는 단일 전통을 상정한다. 즉, 로크의 경험론이 버클리로 발전하고, 버클리의 급진적 경험론은 흄에 이르러서 회의주의로 정점에 이른다는 서술이다. 노턴은 이 일관된 경험론 사슬에 의문을 제기한다. 로크는 물질적 실체(Substance) 개념을 인정한다. 이에 그의 철학은 외부 세계의 실재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감각적 경험을 통해 실재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은 경험을 통한 추론으로 구성될 수 있다. 표준 내러티브에 따르면 버클리는 이런 로크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로크와 버클리 모두 경험론의 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는 틀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로크의 이른바 백지설과 버클리의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Esse est percipi)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로크와 버클리는 모두 관념이 지식의 기초가 됨을 인정한다. 로크는 인식에서 지각이 남긴 인상의 역할을 중시했으며, 버클리는 감각을 통해 지각되지 않는 실체 개념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들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버클리가 로크의 물질적 실체 개념을 전면 부정하면서 경험을 관념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로크는 물질적 실체의 존재를 인정한다. 경험을 통해 얻은 관념들일 물질적 실체를 반영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클리는 물질적 실체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고 모든 것이 관념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형이상학이다. 이 점은 다음 소절(2.2.)에서 살펴 보겠지만, 버클리가 말브랑슈와 베일의 영향을 질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버클리에서 흄으로 이어지는 흐름에도 문제가 있다. 흄이 과연 버클리를 읽었는가에 관한 문제는 철학사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¹⁰⁾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흄의 인식적 회의주의는 경험을 통해 존재를 믿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존재의 확실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단지 감각적 연상일 뿐이며, 실재 여부는 불확실하다.¹¹⁾ 흄에게 있어서 실

10) Popkin, Richard H (1959), "Did Hume ever read Berkeley?" *Journal of Philosophy* 56 (12):535-545. 이 대표적이다. 팝킨 외에도 많은 이들이 논쟁에 참여했으며, 몇년 뒤에 출간된 그의 정리 논문 역시 참고할 수 있다. Popkin, Richard H(1964,) "So, Hume did read Berkeley. *Journal of Philosophy* 61 (24):773-778.

11) Hume, David (2007), *A treatise of human nature: a critical edition. Edited by David Fate Norton & Mary J. Nor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 part 1; Hume, David(2000),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 Critical Edition. Beauchamp, Tom L. (ed.)*, Oxford, Clarendon Press.

재성의 논의는 무의미하며, “존재란 무엇인가?”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은 답변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는 자아(self)개념에서 잘 드러나는데, 버클리가 영혼과 신의 존재를 인정해 정신적 실체의 지속을 믿었음에도 흄은 이를 지각의 다발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흄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본성적 믿음(natural belief)에 있기에 신의 존재 또한 경험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적 믿음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LBH사이의 불연속성은 영국 경험론을 하나의 전통으로 여기는 데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노턴의 두 번째 비판과도 연관되는데, 소위 영국 경험론자들은 대륙의 철학 전통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2. 영국 경험론에 대한 대륙 철학의 영향

노턴은 위의 논의를 발전시켜 영국 경험론의 시조로 프랑스의 철학자 가상디를 제시한다. 가상디는 소위 데카르트적 합리론을 비판하며 경험론적 자연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이 실제 경험하는 외양(appearance)을 기초로 지식을 구성하려 했다. 또한 귀납과 실험을 통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자연과학의 지식 획득 과정을 뒷받침했다. 즉, 경험론의 핵심으로 꼽힐 수 있는 “감각 경험을 통한 지식”, “현상적, 가설적 접근”, “인간의 제한된 인식 능력” 등의 주장이 가상디에게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가상디의 철학은 베르니에(François Bernier)를 경유해 로크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¹²⁾

버클리 역시 당대 대륙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말브랑슈의 관념론적 인식론은 감각이 아닌 신 안의 관념을 통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논제를 통해 버클리의 물질적 실체의 부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공통점은 당대에도 이미 인식되었으며, 버클리 역시 이를 의식하고 자신의 철학과 가상디의 철학의 차이점을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¹³⁾ 흄의 철학에서도 말브랑슈의 영향력은 강하게 드러난다. 맥크라켄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¹⁴⁾

12) Aaron, Richard I. (1971), *John Locke (3rd ed.)*, Oxford, Clarendon Press. pp. 31-35.

13) Benjamin Rand(1914), *Berkeley and Perciv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9; Berkeley, George(1998). *Three Dialogues Between Hylas and Philonous*. Dancy, Jonathan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4.

14) 더 자세한 논의는 영국 경험론에 대한 말브랑슈의 영향을 다룬 저서인 McCracken, Charles J(1983),

많은 영국 경험론자들이 대륙의 철학 적서를 읽고, 자신의 이론 내부에 포함시켰는데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즉, 영국 경험론 내부의 느슨한 연결을 인정해 그들을 하나의 철학적 전통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동시대 유럽 대륙의 철학과의 소통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LBH 경험론의 정식화는 실패한다. 반대로 영국 경험론에 대한 대륙 철학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로크, 버클리, 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 딜레마에 의해서 LBH 경험론이라는 표준 내러티브는 실패한다.

3. 근대 철학의 완성자 칸트

역사가 반조(Alberto Vanzo)는 표준 내러티브가 대체로 “칸트적 내러티브”이며, 칸트주의 역사학자들이 칸트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 발전시킨 결과물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칸트 본인조차 자신의 철학을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을 합리론자로 칭했다.¹⁵⁾ 그러나 앞서 언급된 칸트의 영향을 받은 철학사들이 표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근대철학의 정점에 칸트를 위치시킨 것이다.

이 내러티브는 역사적으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정설화되었음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드러났다.¹⁶⁾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합리론-경험론-칸트 종합의 도식은 이해하기 쉽고 일관된 줄거리를 제공하기에, 다양한 철학적 입장에 속하는 교과서 저술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즉, 철학사의 복잡한 양상을 단순하고 극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수용되기 적절했던 것이다. 그 결과 칸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험론의 흐름이나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된 경험론은 표준 내러티브에서 간과된다. 예컨대 존 스튜어트 밀이나 콩트로 이어지는 실증주의의 흐름은 칸트의 비판철학과 무관하게 지속되었다. 헤겔에게 있어서도 경험론은 변증법적 설명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내러티브에 상정된 칸트의 영웅적 업적을 상정한다면, 근대철학의 복잡성을 이해

Malebranche and British Philosophy, New York, Clarendon Press.를 참고하라. 더해서 노턴은 흄이 버클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매우 적으며, 공간과 시간에 대한 논의에서만 그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참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Norton, Ibid. p.337.

15) Vanzo, Ibid. p.260. 반조는 칸트의 초기 지지자들 역시 칸트를 로크의 대립자로 분석했음을 강조한다.

16) Haakonssen, Knud(2008), *The Cambridge History of Eighteenth-Century Philosophy: Volume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zo, Ibid; Anstey & Vanzo, Ibid.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하는 데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

4. 배제된 주변적 철학자들: 아모와 여성 철학자

LBH를 중심으로 서술된 철학사는 주류 철학자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기에 주변적인 인물들의 기여는 간과되기 일쑤였다. 특히 근대 경험론의 역사에서 흑인 철학자와 여성 철학자들의 사상은 언급되지 않거나, 중요성이 축소되었다. 이는 철학사 정전의 형성 당시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17-18세기 영국에서는 여성들도 철학적 저술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했으나, 후대에는 이들의 중요성이 서술되지 못했다.

예컨대 캐번디시(Margaret Cavendish)는 흄스와 동시기에 자연철학과 인식론에 독자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왕립학회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만의 유물론적-생기론적 철학 체계를 제시했으나, 표준 내러티브의 범주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기에 전통적 분류에서 소외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그의 철학은 철학사에서 배제되었다. 비슷하게 애스텔(Mary Astell)의 로크 비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의 합리론적 신앙철학 역시 표준 내러티브의 어느 쪽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철학사에서 종종 배제되어 왔다. 전형적인 경험론 범주에 어느 정도 속하는 코크번(Catherine Cockburn)은 로크의 철학을 옹호하며, 로크 본인과도 교류를 나눴으나 철학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흄을 비판한 셰퍼드(Lady Mary Shepherd) 역시 배제된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녀는 흄에 대항해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옹호하는 글을 남겼으나 철학사에서 배제되었다.¹⁷⁾

또한 유럽 비백인 철학자의 존재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아모(Anton Wilhelm Amo)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흑인 철학자로서, 심신관계와 인식론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펼쳤다. 그의 사회적 소수자성과 더불어, 그의 이론은 데카르트의 정신-물질 이원론을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경험론의 핵심 원리를 받아들이며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경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¹⁸⁾ 그는 인종적인 편견과 그 철학의 특성 둘 모두 주변

17) West, Peter & Fasko, Manuel(2024), British Empiricism,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아래에 언급된 아모의 철학에 대해서도 본 엔트리를 참고할 수 있다.

18) 아모의 삶과 철학 전반에 대해서는 Smith, Justin E. H. 2015. *Nature, Human Nature, and Human Difference: Race in Early Modern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를 참고할 수

적이었기 때문에 철학사의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 본대로, 표준 내러티브는 철학적, 사회적 주변인들을 제대로 포섭하는 데 실패한다.

즉 주류 철학자들로 논의를 한정하는 표준 내러티브는 위의 네 가지 문제에서 실패한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나는 반 프라센의 경험적 자세 (Empirical Stance)가 대안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험론을 고정된 교의가 아니라 특정한 철학적 태도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론을 태도로 이해함으로써 철학자들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다. 아모와 같은 주변적 철학자들의 기여를 수용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셋째, 철학적 입장(position)의 본질이 강조된다. 철학적 입장이 특정 도그마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덕, 인식적 정책, 실천 등과 자세를 중심으로 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철학의 실천적 면모를 강조한다. 넷째, 경험론 전통의 공통 기반을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 경험론자에서 비엔나 서클까지 다양한 경험론자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형이상학에 대한 끊임없는 반란”과 같은 자세가 이러한 공통점을 잘 설명할 수 있다.

Ⅲ. 자세로서의 경험론, 경험론의 재해석

경험론에 관한 정식화는 철학사학자들의 작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 프라센과 같은 철학자들은 자신을 살아있는 경험론자로 여기면서, 과연 경험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경험론자에게 있어 경험론은 역사의 한 장이 아닌, 현재 생동하는 철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반 프라센이 자신의 사상을 구성적 경험론으로 명명하면서 펼칠 때, 그가 의존한 근거는 역사적 전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철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용어로 ‘경험론’을 선택했다.¹⁹⁾

있다. 그의 철학적 기여와 해석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김준영(2024), 「18세기 서양 흑인 철학자 안톤 빌헬름 아모와 심신문제」, 『인문논총』, 제81권, 제2호 pp. 223-254. DOI: 10.17326/jhsnu.81.2.202405.223. 을 참고하라.

19) Van Fraassen Bas, C(1980), *The scientific im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an Fraassen, Bas C(2002), *The Empirical Stanc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Monton Bradley, & Mohler Chad(2012), “Constructive Empiricism”, In *Ed Zalta (e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반 프라센의 경험론을 설명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을 경험론자로서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던지고 있다. 반 프라센은 경험론 정의 문제에 권위있는 답변(authoritative answer)을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경험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공한다.²⁰⁾ 그는 경험론이 철학적 논제(thesis)가 아니라, 철학적 자세임을 주장한다. 경험론자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경험론적 논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론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는 경험론이 무엇이 될 수 없는지, 경험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경험론이 무엇이 될 수 없는지, 즉 경험론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반 프라센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경험론이 ‘자세(stance)’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반 프라센의 논증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왜 자세 경험론이 좋은 접근방식인지를 논한다.

1. 경험론일 수 없는 것

직관적으로 경험론은 형이상학적 이론화에 대한 반복적인 반발로 정의된다. 반 프라센은 형이상학의 특징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a) 설명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요구하는 것과 (b) 경험에서 명백하지 않은 엔터티나 세계의 특정 측면을 가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설명에 만족하는 것. 즉 현상의 뒤에 숨은 형이상학적 가정이나 존재가 있으며, 이에 의존해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이상학자들의 중심적 태도를 형성한다. 경험론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a'): 경험론은 특정 지점에서 설명 요구를 거부한다.

(b'): 가정에 의한 설명에 대해 강한 불만족을 드러낸다.

경험론은 (a')과 (b')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방법론을 중시한다. 따라서 그들의 철학 역시 과학적 방식을 포함하며, 이는 용인가능성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용인가능성의 원칙(c): 과학에서처럼, 철학에서도 용인 가능한 모든 반론은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20) Van Fraassen, Bas C. (1994). Against Transcendental Empiricism. In *The Question of Hermeneutics*, pp. 309-335; Van Fraassen, Bas C(2002).

또한 기존 철학사는 경험론을 특정 교의에 대한 믿음이라고 특성화(characterize)한다. 예컨대 전형적인 철학자 서술에서 철학적 입장의 핵심 개념과 전제로는 이른바 ‘영원칙(Principle Zero)’이 있다.

영원칙: 각 철학적 입장 X 마다 그 입장에 관련된 진술 $X+$ 가 존재하며, 어떤 입장 X 를 갖는다는 것은 곧 $X+$ 를 믿는 것이다.

편의상 표준 내러티브에서 가정된 경험론의 교의를 가져와서 논의를 진행해보자. 이 교의는 이른바 로크주의 공리(Lockean Axiom)으로 정리될 수 있다.

로크주의 공리: 마음 속의 관념 가운데 어떤 개별 경험을 통해 추적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즉 표준 내러티브에 상정된 순진한 경험론(Naïve Empiricism)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NE) 경험론자가 된다는 것 = 경험론 교의 ($E+$)를 믿는다는 것.
($E+$) 마음 속의 관념 가운데 어떤 개별 경험을 통해 추적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기존 철학사의 설명에 반 프라센은 강한 불신을 드러낸다. 그는 이러한 특성화를 순진한 경험론(naïve empiricism)이라고 부르며, 이를 다면적이고 다각적으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순진한 경험론의 기본 원칙들이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2. 자세 경험론의 도입

순진한 경험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체적 모순으로, 순진한 경험론이 채택하는 기본 원칙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켜 이 입장을 비일관적으로 만든다. “경험만이 유일한 정보의 원천”이라는 주장이 이러한 모순을 야기한다. 두 번째는 형이상학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실패로, 순진한 경험론은 형이상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경험론자가 스

스로 설정한 주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자기-지칭적 모순으로, 순진한 경험론은 스스로를 포함하여 배제하려는 것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는 순진한 경험론을 귀류법(reductio ad absurdum)에 빠뜨리게 되며, 예를 들어 “오직 경험만이 정보의 원천”이라는 주장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명제라면, 이 주장은 자신의 기준에 의해 무효가 된다.

순진한 경험론에서는 경험론적 도그마(E+)를 “유일한 정보의 원천은 경험이다”라고 주장하며, NE를 믿는다는 것은 E+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가능성 원칙(c)은 과학에서처럼 철학에서도 용인 가능한 사실적 가설에 대한 의견 차이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순진한 경험론에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 논증을 살펴본다. 논증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로 E+는 “유일한 정보의 원천은 경험이다”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둘째로 NE는 E+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NE가 E+를 받아들이면 E+에 대한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용인가능성 원칙(c)에 따르면 모든 용인 가능한 가설에 대한 반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NE와 c는 비정합적이다. 이는 NE를 받아들이면 E+에 대한 반대가 용인되지 않아 c와 충돌하며, 반대로 c를 받아들이면 NE의 핵심인 E+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 프라센은 위 주장을 바탕으로 순진한 경험론의 비일관성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전제 1: E+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용인할 수 없다. (NE의 귀결)

전제 2: E+에 대한 의견 차이는 용인 가능하다. (c에서 도출)

전제 3: 따라서 E+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용인 가능하다. (2로부터)

결론: E+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용인 가능하고 동시에 용인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순진한 경험론과 용인가능성 원칙은 동시에 유지될 수 없다. 경험론적 교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철학적 논의에서 필요한 개방성을 제한하므로 철학적 입장으로서는 문제를 일으킨다. E+ 자리에 들어갈 법한 사실적 논제가 모두 보조정리(c)와 비일관적이다.

두 번째 논증은 첫 논증에 이어 순진한 경험론이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순진한 경험론은 형이상학적 질문과 개념을 부정하고 비판하려고 한다. 그들은 “형이상학적 주장은 경험적 데이터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암묵적으로 형이상

학적 전제에 의존한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지식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로크주의 공리에 의존하는 것이다. 문제는 로크주의 공리 자체가 일종의 형이상학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론은 형이상학의 비판자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경험론의 정신을 명확히 포착할 수 없다.

세 번째 논증은 경험론이 자기-논박적이라는 것이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지식의 유일한 기준인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증명 불가능하다. 따라서 순진한 경험론은 스스로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것을 믿고 행해야 한다. 이는 자기모순적이며, 철학적 입장으로서의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위 세 논증을 좇아, 반 프라센은 경험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세 개념으로 경험론을 설명해야 한다. 경험론은 교의(dogma)나 교리(doctrine)가 될 수 없으며, 자세(stance)여야 한다. 자세는 인지적 상태와 비인지적 태도의 집합으로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 프라센의 경험적 자세는 설명의 요구를 거부하고, 가설을 통한 설명에 불만족하며, 경험으로의 회귀를 촉구하고, 과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또한, 합리적 불일치를 허용하는 태도로, 인식적 정책(epistemic policy)으로 작용하여 믿음 수정이나 탐구를 지배하는 규칙으로 기능한다. 과학에 대한 존중이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경외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특정 규칙(예: 최선의 설명 추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리하자면, 경험론적 자세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인식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형이상학적) 설명의 요구 거부
- (형이상학적) 가설을 통한 설명에 대한 불만족
- 경험으로의 회귀를 촉구
- 과학에 대한 존중

3. 자세란 무엇인가? 왜 자세인가?

'자세(Stance)'는 특정 사안에 대한 태도, 입장, 방향성을 의미한다. 철학적 맥락에서 자세는 존재론적 주장에 대한 태도와 전략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명제적 믿음(belief)이 아닌, 태도(attitude), 실천적 지향(commitment), 전략(strategy)의 집합체로 이해된다. 이는 과학적 탐구를 포함한 인식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론적 지침으로 작용한다. 자세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제는 진릿값을 가지지만, 자세

는 특정 주장의 진리성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행동 지침이나 정책과 같은 규범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세는 존재론적 주장을 생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적 차원의 개념이다.

물론 자세는 일부 사실적 믿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특정한 의도, 실천적 지향, 가치 등을 포괄하는 태도의 집합에 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반 프라센과 텔러는 “정책(Policy)”으로 설명하며, 로바텀과 부에노는 커미트먼트의 방식, 추론 방식, 명제적 태도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부서는 자세를 “세계에 대한 특정 방향성” 또는 “사실을 보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바우만은 자세를 특정한 인식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대해 채택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연구 질문의 중요성 판단이나 의미 있는 용어 선택, 특정 활동의 목적 설정 등에 영향을 준다.²¹⁾

자세 개념을 경험론에 적용한 것이 자세 경험론이다. 자세 경험론은 경험론을 특정 명제들의 집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특정한 인식적 정책이나 규칙을 통해 탐구와 믿음 형성을 지도하는 실천적 태도로 이해한다. 즉, ‘경험 중시’라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탐구 활동을 규정하는 규칙과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세 경험론은 철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험론의 문제 해결. 전통적인 경험론은 자기 자신의 원칙을 명제로 표현할 경우 자기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자세 개념은 경험론을 명제가 아닌 태도와 전략의 문제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자기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철

21) 자세의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에 언급된 논문들은 Teller, Paul(2004), “Discussion: What is a stance? Philosophical Studies”, *Philosophical Studies*, 121(2), 159-170; Rowbottom, Darrell Patrick, & Bueno, Otávio(2011), “Stance and rationality: a perspective”. *Synthese*, 178(1), 1-5.; Baumann, Peter. (2011) “Empiricism, stances, and the problem of voluntarism”. *Synthese*, 178(1), 27-36; Boucher, Sandy C(2014), “What is a philosophical stance? Paradigms, policies and perspectives”. *Synthese*, 191(10), 2315-2332. 이며 최근의 비판적인 논의로는 Kusch, Martin(2021), “Epistemological anarchism meets epistemological voluntarism : Feyerabend’s against method and van Fraassen’s the empirical stance” In *Karim Bschr & Jamie Shaw (eds.), Interpreting Feyerabend: Critical Essay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89-113.; Psillos, Stathis(2021), “Scientific Ontology: Fact or Stance?” *Dialogue* 60 (1):15-31. 등을 참고하라. *The empirical Strance*의 출간 이후 이루어졌던 자세 개념에 관한 논쟁과 반 프라센의 답변은 Monton, Bradley John (ed.)(2007), *Images of empiricism: essays on science and stances, with a reply from Bas C. van Fraas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적 입장의 본질 강조. 자세 개념은 철학적 입장이 단순한 교의(dogma)의 집합이 아니라, 가치(Virtues), 인식론적 정책(Epistemic Policies), 실천(Practices) 및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셋째, 경험론 전통의 공통 기반 제공. 자세 개념은 고대 그리스 경험론부터 현대 경험론까지 다양한 경험론 사상들의 공통 기반을 드러낼 수 있다. “형이상학에 대한 반발”과 같은 공유된 가치와 실천들이 이러한 다양한 경험론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서 앞서 언급된 표준 내러티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첫째, 경험론을 고정된 교의가 아니라 철학적 태도와 정책의 문제로 재구성함으로써 내부 분절성 문제를 극복한다. 전통적 표준 내러티브에서는 로크, 버클리, 흄을 하나의 연속된 경험론 전통으로 묶지만, 실제로 이들 각각은 서로 상이한 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자세 경험론은 경험론의 핵심 원칙을 단순한 명제로 규정하는 대신, 철학적 태도와 인식 정책, 그리고 실천 전략의 집합체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접근은 로크가 물질적 실체를 인정한 점, 버클리가 그 실체를 부정하고 관념으로 치부한 점, 그리고 흄이 인과와 자아 개념에 대해 극단적 회의주의를 보인 점 등 내부 분절성을 하나의 유연한 “경험적 자세”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경험론을 고정된 교리로 취급하지 않고 다양한 인식적 정책과 태도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내부의 이질성을 문제 삼지 않고 서로 다른 경험론적 접근을 하나의 포괄적 전통으로 통합할 수 있다.

둘째, 영국 경험론의 기원을 대륙 철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해석하여, 대륙 철학의 영향력을 포함시킨 포괄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자세 경험론은 경험론의 기원을 영국 내부의 순수한 발전으로 한정 짓지 않고, 데카르트, 말브랑슈, 라이프니츠 등 대륙 철학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된 복합적 흐름으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영국 경험론자들이 대륙 철학의 영향 아래 자신의 인식론적 문제들을 발전시켰음을 인정하며, 경험론 전통이 단일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여러 문화적·지리적 전개와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다층적 전통임을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경험론을 대륙 철학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단일 국가 중심의 좁은 해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철학사적 전개를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칸트 중심의 단일 종합 서술이 갖는 한계를 비판하고, 칸트 이후에도 다양하게 계승되는 경험론적 흐름을 재조명한다. 자세 경험론은 칸트를 단일 영웅적 종결자로 보는 대신, 칸트가 제시한 비판철학의 한 측면으로서 경험론 문

제에 접근했음을 인정한다. 또한, 칸트 이후에도 경험론적 전통은 로크, 버클리, 흄뿐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나 실증주의, 현대 논리실증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계승되고 재해석되었음을 인정한다. 자세 경험론은 경험론의 다원적 흐름을 재조명함으로써 근대 철학 전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주변 철학자들의 배제를 탈피하여, 다양한 인종·성별 및 지역의 철학자들이 경험론 전통에 기여한 바를 포함함으로써 경험론의 풍부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자세 경험론을 통해 경험론 전통이 특정 인종·성별 또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접근은 기존 내러티브가 갖는 편협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이 상호작용하는 열린 담론 공간으로서의 경험론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자세 개념은 경험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철학적 입장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자세 개념을 통해 우리는 철학적 논쟁을 더 생산적으로 이끈다. 경험론자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공고히 함과 동시에, 자세는 참/거짓의 문제를 넘어, 경험론적 자세를 실천해서 철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

IV. 철학사의 도구로서의 경험적 자세에 대한 비판과 답변

나는 자세 경험론이 유망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재적인 문제와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일부 철학자들은 반 프라센의 자세 개념이 역사적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특히 야우어니히(Anja Jauernig)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철학자로서 경험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교의적 명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²²⁾ 이 장에서는 자세 접근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핀다.

1. 야우어니히의 비판

22) Jauernig, Anja(2007), "Must empiricism be a stance, and could it be one? how to be an empiricist and a philosopher at the same time" In Bradley John Monton (ed.), *Images of empiricism: essays on science and stances, with a reply from Bas C. van Fraas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1-318.

야우어니히가 제시한 반론은 그의 논문의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경험론은 반드시 자세여야만 하는가? 과연 경험론이 자세가 될 수 있기는 한가? 라는 두 질문이 그것이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살펴보자. 반 프라센은 경험론이 형이상학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는 명제 자체가 형이상학적 주장이기 때문에, 경험론은 스스로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우어니히는 이 주장에 반대한다. 기존 경험론을 다른 방식으로 정식화한다면 자기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경험론을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꾼다면 반드시 모순에 빠지지 않는 다. 즉, 모든 형태의 순진한 경험론이 반 프라센이 제시한 모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제시하는 수정안 두 가지는 (c)를 약간 변형하는 것이다.

(c+) 해당 가설이 (E+)에 의해 논리적으로 함축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모든 용인 가능한 사실적 가설과의 불일치는 허용된다.

(c*)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에서도, 원칙적으로 경험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가설은 현재 이용가능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험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가설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수정들 가운데 하나를 적절히 선택한다면 귀류법 논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야우어니히의 첫 번째 주장이다. 첫 번째 제안(c+)은 E+의 예외성을 인정하면서 귀류법을 피한다. 이 제안은 (E+)가 갖는 교의로서의 위치가 이미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경험론자들이 반드시 이를 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두 번째 제안(c*)은 E+와 양립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주장들을 경험적 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귀류법 논증을 피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E+) 자체가 경험적으로 조사될 수 있든 없든 복잡한 사례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두 번째 질문, 과연 경험론이 자세가 될 수 있기는 한가?에 대한 야우어니히의 답변 역시 부정적이다. “나는 형이상학이 싫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만으로는 형이상학적 진술을 틀렸다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론의 특성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반 프라센의 접근처럼 철학적 입장을 자세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형이상학을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자세로 생각한다면 상대의 철학적 입장 역시 자세로 이해해야 하고, 이 경우 경험론자의 형이상학 비판에 대한 형이상학자의 논박은 간

단하다. “당신이 형이상학을 싫어한다는 것은 알겠다.” 따라서 강한 형이상학 비판을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는 강한 교의에 관한 명제 태도 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서 야우어니히는 어떤 실천 규범에 커미트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야우어니시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경험론을, 교의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재정식화한다. 경험론의 경험적·방법론적 기초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가 드는 예시는 경험론을 ‘경험적 검증을 최우선시 하는 전통’으로 형식화 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경험 중심적 방법을 선호하고, 그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일련의 철학적 전통”이 그것이다.²³⁾ 다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이것이 형이상학에 대한 반대를 자동적으로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설명에서는 형이상학 비판 논증이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경험적 방법론 혹은 실천 규범을 추가해야 한다.

2. 답변

반 프라센(Bas van Fraassen)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교화해 왔다.²⁴⁾ 비판자들과의 논쟁에서 그는 일부 오해를 인정했으며, 특정 지점에서는 양보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처음에 제시했던 것만큼 ‘순진한 경험주의(naïve empiricism)’가 반드시 노골적인 비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경험주의 원칙을 보다 신중하게 구성하면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 프라센은 철학적 입장 분석에서 그의 자세 분석이 반드시 원본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조금 후퇴시켰다. 따라서 경험론이 반드시 모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은 표준 내러티브의 비판에 대한 나의 논점마저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자세 접근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될 수 있다. 즉, 경험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교의로 상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사전에 차단하는 좋은 도구는 자세 접근법이다. 경험론을 야우어니시가 제시하는 대로 수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반 프라센이 제시한 형

23) Jauernig, Ibid. p.316

24) van Fraassen, Bas C(2007), “From a view of science to a new empiricism” In Bradley John Monton (ed.), *Images of empiricism: essays on science and stances, with a reply from Bas C. van Fraas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37-383. esp. pp. 366-373.

태의, 자기모순을 포함하는 사상이 있다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사상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의 의견을 기술하는 데에는 여전히 자세 접근법은 유효하며, 특히 LBH의 입장을 하나로 엮는 방법을 제시할 때 효과적이다.

3. 추가적 문제와 답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 자세 개념을 활용하여 철학사를 서술할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점은 역사적 연속성과 뉘앙스(nuance)의 상실 가능성이다. 철학적 운동과 사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며, 지적 맥락, 논쟁, 변화하는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철학자의 입장을 단순히 하나의 자세를 가졌다고 단순히 명명하는 것으로 축소하면, 해당 사상이 성장한 맥락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자세 개념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시간 초월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사 연구자는 이러한 커미트가 시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7세기의 ‘경험적 자세’는 중세 스콜라 철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과학을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했지만, 20세기의 ‘경험적 자세’는 논리 실증주의를 거부하거나 과학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입장을 의미했다. 따라서 자세 개념만으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각 사상가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겨냥했으며, 특정 맥락에서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세 접근법은 지나치게 도식적(schematic)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자세 접근법은 일종의 역사적 메타-통찰(meta-historical insight)을 제공한다. 즉, 과거 철학자들의 입장을 자세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스피노자는 일원론적 자세(monist stance)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일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반면, 보일(Boyle)은 실험적 자세(experimental stance)를 취했으며, 이는 관찰 가능한 개입(observable interventions)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단순히 스피노자를 ‘합리론자’, 보일을 ‘경험론자’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더 전통적인 철학적 입장을 가진 비판자들은 자세 철학이 상대주의(relativism)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철학적 입장이 하나의 자세라면,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철학적 논의의 끝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반 프라센은 프래그머티즘 전통의 영향을 받아, 철학적 논쟁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답한다. 때때로 ‘결정적 논증(knock-down argument)’보다는 더 깊은 설득(persuasion)이나 관점의 전환(shift in perspective)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자세 개념의 중요한 함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명제 태도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참의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프래그머티즘과 과학철학에서 익숙한 주제이며, 쿤(Kuhn)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개념과도 유사하다.²⁵⁾ 쿤에 따르면, 과학적 변화는 단순히 논리적 증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체계로의 ‘개종(conversion)’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즉, 과학적 패러다임이 바뀔때 정상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패러다임 내부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이론에 커미트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강하게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합리성에서 해석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학적 자세 간의 차이도 이와 유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입장들을 살아있는 선택지(live option)로 여기면서, 설득과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²⁶⁾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세 기반 접근법은 철학적 논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었다. 특히 과학철학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철학자들은 ‘실재론적 자세(realist stance)’와 ‘구조주의적 자세(structuralist stance)’ 등을 논의하며 사람들이 단순한 증거적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분석한다.²⁷⁾ 나는 이 지점 역시 자세 접근법을 철학사 논의에 도입할 좋은

25) Kuhn, Thomas 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6) James, William(1956), “The Will to Believe”, in James, William, *Will to Believe. The Will to Believe and Human Immortalit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pp. 1-31.

27) 예컨대 과학적 실재론 논쟁에서 구조주의를 자세 개념으로 활용하는 견해는 Boucher, Sandy C(2015), “Functionalism and structuralism as philosophical stances: van Fraassen meets the philosophy of biology”, *Biology and Philosophy* 30 (3):383-403.; McKenzie, Kerry(2024), “Structuralism as a Stance.” *Philosophy of Physics* 2(1): 1, 1-2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실재론을 자세로 분석하는 견해는 Pincock, Christopher (2024), “Defending a Realist Stance”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37 (1), 1-15. 을 참고하라. 이외에도 과학철학의 많은 분야에서 자세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Psillos, Stathis (2021). “Scientific Ontology: Fact or Stance?” *Dialogue* 60 (1):15-31; Chakravartty, Anjan(2017), *Scientific Ontology: Integrating Naturalized Metaphysics and Voluntarist Epistem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를 참고하라. 과학적 이해에 대한 인식론 논쟁에서는 Henk de Regt와 Kareem Khalifa가 자세 개념을

증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V. 결론

근대 철학사는 경험론과 합리론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 구도는 여러 문제가 있음을 위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반 프라센의 경험적 자세 개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반 프라센의 논의는 경험론 내부의 이질성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영국 경험론과 대륙 철학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고, 배제된 철학자들 역시 자세라는 틀 내부로 포섭할 수 있다.

반 프라센 본인이 철학사가 아닌 분석철학자이기에 이 접근법이 많은 철학사가들 혹은 근대 철학의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자세 개념의 지나친 추상성은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자세 접근법의 유용성은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경험론을 고정된 교의가 아닌 유연한 태도로 이해하는 접근법은 단순화된 철학사 구도를 극복하고 철학사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거칠게 도입된 표준 내러티브의 극복을 위한 시도는 비판적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철학사 구조를 재구성하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통해 논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Lawler, Insa ; Khalifa, Kareem & Shech, Elay (eds.)(2022),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Representation: Modeling in the Physical Sciences*. New York, NY, Routledge.

참고문헌

- 김준영(2024), “18세기 서양 흑인 철학자 안톤 빌헬름 아모와 심신문제”, 인문논총, 제81권, 제2호, pp. 223-254.
- 김효명(2002), 『영국 경험론』, 서울, 아카넷.
- Aaron, Richard I. (1971), *John Locke (3rd. ed.)*, Oxford, Clarendon Press. pp. 31-35.
- Anstey, Peter R. & Vanzo, Alberto(2023), *Experimental philosophy and the origins of empiricism*. Edited by Alberto Vanz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ann, Peter. (2011) “Empiricism, stances, and the problem of voluntarism”. *Synthese*, 178(1), 27-36.
- Benjamin Rand(1914), *Berkeley and Perciv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keley, George(1998). *Three Dialogues Between Hylas and Philonous*. Dancy, Jonathan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ucher, Sandy C(2014), “What is a philosophical stance? Paradigms, policies and perspectives”. *Synthese*, 191(10), 2315-2332.
- Boucher, Sandy C(2015), “Functionalism and structuralism as philosophical stances: van Fraassen meets the philosophy of biology”, *Biology and Philosophy* 30 (3):383-403.
- Copleston, F(1991). 『영국 경험론』, 이재영 옮김, 서울, 서광사.
- Copleston, F(1996), 김성호 옮김, 『합리론』, 서울, 서광사.
- Chakravartty, Anjan(2017), *Scientific Ontology: Integrating Naturalized Metaphysics and Voluntarist Epistem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onald Garrett(2004), “Philosophy and History in the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In *The Future for Philosophy*, ed. Brian Lei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akonssen, Knud(2008), *The Cambridge History of Eighteenth-Century Philosophy: Volume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me, David(2000),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 Critical Edition*. Beauchamp, Tom L. (ed.), Oxford, Clarendon Press.

- Hume, David(2007), *A treatise of human nature: a critical edition. Edited by David Fate Norton & Mary J. Nor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 William(1956), "The Will to Believe,"in James, William, *Will to Believe. The Will to Believe and Human Immortalit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Jauernig, Anja(2007), "Must empiricism be a stance, and could it be one? how to be an empiricist and a philosopher at the same time" In Bradley John Monton (ed.), *Images of empiricism: essays on science and stances, with a reply from Bas C. van Fraas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1-318.
- Kant, Immanuel(2004). *Immanuel Kant: Prolegomena to Any Future Metaphysics: That Will Be Able to Come Forward as Science: With Selections From the Critique of Pure Rea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hn, Thomas 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sch, Martin(2021), "Epistemological anarchism meets epistemological voluntarism : Feyerabend's against method and van Fraassen's the empirical stance" In Karim Bschrir & Jamie Shaw (eds.), *Interpreting Feyerabend: Critical Essay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89-113.
- Lawler, Insa ; Khalifa, Kareem & Shech, Elay (eds.)(2022),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Representation: Modeling in the Physical Sciences*. New York, NY, Routledge.
- Leibniz, G. W.(1981),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anslated and edited by Peter Remnant and Jonathan Benn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cke, John(1959),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vol. 1, ed. Alexander Campbell Fraser, New York: Dover.
- McCracken, Charles J(1983), *Malebranche and British Philosophy*, New York, Clarendon Press.
- McKenzie, Kerry(2024), "Structuralism as a Stance." *Philosophy of Physics*, 2(1): 1, 1-23.
- Monton, Bradley John (ed.)(2007), *Images of empiricism: essays on science and stances, with a reply from Bas C. van Fraas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onton Bradley, & Mohler Chad(2012), “Constructive Empiricism”, In Ed Zalta (e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tanfor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Norton, David Fate(1981). “The myth of ‘British empiricism’”, *History of European Ideas* 1 (4), 331-344.

Pincock, Christopher(2024), “Defending a Realist Stance”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37 (1), 1-15.

Popkin, Richard H(1959), “Did Hume ever read Berkeley?” *Journal of Philosophy* 56 (12):535-545.

Popkin, Richard H(1964,) “So, Hume did read Berkeley. *Journal of Philosophy* 61 (24):773-778.

Psillos, Stathis(2021), “Scientific Ontology: Fact or Stance?” *Dialogue* 60 (1):15-31.

Rowbottom, Darrell Patrick, & Bueno, Otávio(2011), “Stance and rationality: a perspective”. *Synthese*, 178(1), 1-5.

Russell, Bertrand(2020), 『러셀 서양철학사』, 서상복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Smith, Justin E. H. 2015. *Nature, Human Nature, and Human Difference: Race in Early Modern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eller, Paul(2004), “Discussion: What is a stance? *Philosophical Studies*”, *Philosophical Studies*, 121(2), 159-170.

Van Fraassen Bas C(1980), *The scientific im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an Fraassen, Bas C(1994), “Against Transcendental Empiricism”. In Stapleton, Timothy J.(ed.), *The Question of Hermeneutics*, pp. 309-335.

Van Fraassen, Bas C(2002), *The Empirical Stanc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Van Fraassen, Bas C(2007), “From a view of science to a new empiricism” In Bradley John Monton (ed.), *Images of empiricism: essays on science and stances, with a reply from Bas C. van Fraas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37-383.

Vanzo, Alberto(2016), “Empiricism and Rationalism in Nineteenth-Century

Histories of Philosophy“ ,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7 (2), 253-282.
West, Peter & Fasko, Manuel(2024), British Empiricism,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